

필리핀 학교교육의 실태와 특징:

산베다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정 용 교*

1. 머리말

우리의 학교교육은 입시와 시험위주로 진행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교육목표가 있고, 정돈된 교육철학이 있지만 현장차원의 학교교육은 아주 다른 모습을 띤다. 현장에서의 학교교육은 이론과 실제간의 괴리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현장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이른바 SKY로 대변되는 명문대 합격에 초점을 둔다. 명문대 합격은 성공한 교육과 실패한 교육,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를 확연하게 가른다. 교육당국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글로벌화, 세계화에 걸맞은 신교육적 질서수립을 줄기차게 주장하면서도 점수와 성적에 매몰된 전근대적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경쟁력 강화의 국가발전 전략에 맞물려 시험과 점수위주 교육이 한층 강화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¹⁾

*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

1) 최근 몇몇 주류신문들은 수능상위성적을 낸 전국 100개 고등학교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각가지 분석기사를 실고 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학순위에서 고등학교서열까지 이어지는 학교성적공개라는 현상을 두고 볼 때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으로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다. 바로 학교교육이란 점수와 성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때 좋은 교육을 한 것으로 여긴다. 학교교육의 경제중속화 현상이 전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장의 학교교육은 명문대 합격을 위해 점수와 성적위주로 치열하게 전개된다. 이런 치열한 점수위주의 공부과정에서 갖가지 수단 방법이 교묘하게 동원되기도 한다.²⁾ 점수위주의 교육에서는 교육다운 교육원리를 실현하기 힘들다. 최근 입시위주 공부는 고등학교에 그치지 않고 중학교, 초등학교에 이르면서 좋은 학교란 곧 명문대 합격자 수로 등치되기에 이르렀다. 이즈음에서 학교교육의 의미와 역할은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어떤 학교교육의 모습을 형성하여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느냐는 미래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와 다른 학교교육모습에 대해 살피는 것은 우리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글로벌화의 와중에서 우리는 학교교육의 좀더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와 닿을 수 있는 필리핀 학교교육의 이모저모에 대해 현장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현행 학교교육을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연구자는 2009년 8월20일에서 27일 동안 메트로 마닐라 소재의 San Beda College Alabang과 Rizal 캠퍼스(베네딕도수도회 소속학교)를 방문하여 그곳의 교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관찰하였으며, 그곳 교육담당자들 및 학생들과의 여러 차례의 면담을 가졌다. 그곳 학교 구성원(교장, 교사, 학생, 한국유학생 등)과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의 제반환경(교실, 교무실, 도서실, 과학실, 교육과정 등)을 둘러볼 수 있었다. 이런 면접과 현지관찰을 통해 알라방 학교교

2) 실제 인문계고교의 교육상황을 눈여겨본다면 우리의 학교교육이 교육적 차원에서 전개되는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명문대 진학준비로 진행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학교일과, 시험의 연속으로 나타나는 점수압박감, 숫자화에 입각한 서열화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육의 실태, 교육목표와 지향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필리핀 중등교육의 제반 실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또 그곳 학교교육의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 다루어진 대부분의 내용들은 필리핀의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필리핀 (중등)학교교육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며, 면접과 참여관찰에 의존한 것이어서 실증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연구방법론상의 한계를 갖는다.³⁾

II. 필리핀 학교교육의 현황

필리핀은 1521년 마젤란 상륙 이후 300여 년 동안의 스페인 지배, 1898년 이래 50년 동안의 미국지배, 제2차 세계대전 3년 동안의 일본점령을 경험하였으며, 1946년 이래 독립국가 형태를 유지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필리핀은 아시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아시아 여타 나라의 사회문화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학교교육에서도 서구식과 동양식이 절충된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서구적 형태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동양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서구식 교육을 일반화하고 있다. 서양의 동양이라 할 정도로 동서문화의 교차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지배 동안 형성된 미국식 교육은 필리핀 학교교육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동양권 문화에 미국식 교육이 일반적으로

3) 아울러 이 글을 통해 필리핀의 산베다 학교교육의 장점을 부각시켜 우리학교교육을 폄하하여 바라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며 대신 비교론적 관점에서 산베다 학교교육의 실재를 검토하여 우리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적 인식의 지평을 넓히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⁴⁾

스페인 식민지배 동안 필리핀 교육은 엘리트 양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소수의 사립중등학교와 대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그것은 식민 관료와 부유한 현지 지배층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미 1611년 University of Santo Thomas를 설립하였을 정도로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서구식 교육을 일찍 도입하였다. 그 뒤 미국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필리핀에 본격적인 대중교육이 도입되었다. 미국은 스페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선교사를 파견하였으며, 특히 마을학교(Barangay School)를 세우고 영어를 보급하고 대중교육을 전파하였다. 이후 필리핀에서는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교육을 통해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대중교육이 확산되었다(유석춘 1998: 114).

필리핀의 학교체계는 초등 6년과 중등 4년을 의무교육으로 한다. 우리와 다른 점은 중학교과정 없이 바로 고등학교 4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첫 2년은 공통인 일반적인 인문교양교육을 받도록 하며, 나머지 2년은 진로에 따른 인문/직업교육을 받도록 한다. 4년간의 고교졸업 후 학생들은 2년 과정의 전문대학(junior college) 혹은 A레벨 시험을 치른 뒤 대학(college and university)에 진학할 수 있다. 또 취업을 위한 기술-직업(technical-vocational) 영역으로 진출하기도 한다(Emmanuel 2009: 5). 필리핀 교육은 우리를 포함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 중등교육 기간(중고 6년)을 2년 짧게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4) 필리핀 사회과 교육에 대해 관찰한 김태영은 “실제로 사회과 교육의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그들 스스로 사회과의 나선형 교육과정조직에 있어서는 미국의 그것보다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할만큼 되었다”고 하였다(Lazara Julianda 1971; 김태영 1977: 2).

<표1> 아시아 주요국의 교육연한 및 교육비 지출비율(2007년 기준)

나라	초등	중등	합계(기초)	대학	총년수	GDP지출(%)
필리핀	6	4	10	4/5	14/15	2.5%
싱가포르	6	6	12	4	16	3.1%
중국	6	6	12	4	16	3.5%
일본	6	6	12	4	16	3.5%
한국	6	6	12	4	16	3.1%

출처: Emmanuel. A New Philippine Education Highway(2009)

필리핀 학교교육은 학년진급에 따른 탈락율이 높다. 초중등 및 대학교육에 걸쳐 필리핀 학교들은 각 교과영역의 수업에서 통과/탈락(pass/fail)이 높게 나타난다. 필리핀 학교교육체계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진급율과 탈락율은 다음과 같다. 초등 1학년(100%) → 초등 6학년(등록 66%, 탈락율 34%) → 고교 1학년(등록 58%, 탈락율 8%) → 고교 4학년(등록 43%, 탈락율 15%) → 대학1학년(등록 23%, 탈락율 20%) → 대학졸업(등록 14%, 탈락율 9%)으로 나타났다(Emmanuel 2009: 59). 물론 필리핀 교육에서 이렇게 탈락율이 높은 것은 필리핀의 경제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필리핀 교육계에서는 초등교육 이전(Pre-primary School)의 아동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 것이냐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 사실은 필리핀 교육의 특수상황에 의한 것으로, 다른

5) 필리핀 중등교사 출신(제니퍼, 2010. 5.24 면담)은 필리핀 학교교육에서 탈락율이 높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필리핀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즉 부모들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자식들에게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필리핀 사람들의 일에 대한 가치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어서 일부 필리핀인들은 학교생활보다 일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에서는 다산인 가정이 많은데 이 경우 자식들을 한꺼번에 공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누나가 공부 중에 있으면 동생을 함께 공부시킬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아들/딸의 구분은 없다. 특히 필리핀 중등4년의 기간이 다른 나라와의 경우에 비해 짧은 이유는 경제적 측면도 있겠지만 동시에 미국식민통치 기간 동안 미국이 당시 필리핀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만들어준 제도를 따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Ⅲ. 산베다 학교교육의 특징⁷⁾

산베다 학교는 베네딕도 수도원(the Abbey of Our Lady of Montserrat) 소속으로 “기도하고 일하라(ORA et LABORA)”를 지침으로 “원리에서는 가톨릭 그리스찬을, 지향에서는 베네딕틴을, 성품에서는 필리핀인을(Catholic Christian in Principle, Benedictine in Orientation, and Filipino in Character)”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San Beda College Alabang 2008: 10).

산베다 학생들은 학년별로 등교시간이 다르다. 고교 2,3,4학년의 경우 매일 7:20에 수업을 시작하고 학생들은 7:00까지 등교해야 한다. 1학년의 경우 10:00에 수업을 시작하며 학생들은 9:30까지 등교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초등학교 생활에 익숙한 학생들이 심화학습을 해야 할 중등학교 교육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아울러 학령을 고려한 학사운영이라고 했다.

산베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심화학습 프로그램 및 부진학생을 위한 학습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수월성 향상을 시도하면서도 동시에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의 실현에도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우수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이 활동 프로그램을 위해 정규교육과정 밖에서거나 혹은 정규교육과정의 보완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영역을 반영한 강좌를 개설하여 그들의 창의적 능력향상에 노력한다. 산베다 학교는 3,4학년 학생들에게 심화트랙제(Career Tracking

7) 산베다 알라방 학교는 1972년 성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설립한 학교로 메트로 마닐라 Muninlupa Alabang Hills Village에 대학,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하나의 캠퍼스 안에 위치해 있다. 빈부격차가 심한 필리핀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산베다 알라방 학교는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지역적 여건으로 비교적 명문 사립학교로 보인다. 산베다 리살캠퍼스는 산베다 맨디올라 캠퍼스 소속의 초중등학교로 이 학교 역시 지역여건이 양호한 명문학교이다. 두 학교는 동일한 베네딕도 수도원 소속의 학교로 인사와 재정 등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 하에 있었다.

Scheme)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재능, 이해관심과 성취수준에 따른 그룹별 수업을 진행한다. 이런 그룹화에 의한 수업은 의학, 물리학(공학과정 포함), 문리과와 상업 그리고 경영영역을 포함한다. 각 코스에 상응하는 심화수업, 예컨대 인간해부학, 분석기하학, 컴퓨터보조디자인(CAD) 등이 제공된다.

산베다 학교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사진을 갖추고 있었고, 특히 교사들은 행정일에서 벗어나 교과와 학생지도에 전념하였다. 행정일은 비서(Administrators)가 전담하여 처리하였으며, 교사는 교재연구와 지도 그리고 학생생활을 책임지고 담당하였다. 비서는 각종 재정적, 행정적 업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였다. 비서는 교육활동의 전반에 걸쳐 권위와 감독을 행사하였다. 비서는 국가의 교육계획과 정책을 입안·구상하고, 국가의 교육표준을 기획하여 학습결과를 청취·평가하며, 고용지위, 전문능력, 복지, 구성원들의 노동조건 등에 관련된 일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비서직속으로 차관비서와 보조비서까지 두어 업무의 효율을 시도하였다(Ulpiano 'ULAN' 2008: 72). 산베다 학교에서는 학생신상 관련 일체의 업무를 맡는 전문기록원(Registrar)을 두어, 학생들의 성적변화와 학적이동과 같은 사항을 전담하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의 적성과 성적에 관련된 제반 변화상황을 수시로 추적·파악하여 교사들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⁸⁾

산베다 학교는 특기적성능력의 신장에도 특별히 관심을 부여하였다. 그곳 학생들은 각종 경시대회와 그밖의 학생행사에 자주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 필리핀 내에서는 물론 아시아권역의 수학경시에 참가하여 두서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수영과 농구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각종 경시대회나 운동경기 등

8) 우리의 경우 학생의 학적관련 및 그 밖의 학생관련 기록은 물론 성적향상 등과 같은 일은 교사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특별지도까지 하였다. 심지어 경시대회 대비 특별교과과정을 편성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⁹⁾

산베다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과 함께 하는 학교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교행사를 개최하여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섬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네트워킹 체계구축을 시도하였다. 관련기관 견학과 지역인사 초청, 실험실습 등을 일상화하였고, 또 학교행정에의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음악회, 미술전시회, 학습경진대회, 박물관학교 등에 학교를 공개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이곳에서 학교는 일종의 ‘지역사회 문화센터’ 구실을 수행하였다.

IV. 산베다 학교교육의 실제

1. 교육과정

산베다 칼리지 알라방 소속 고교는 중고 통합의 4학년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기본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되어 많은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여기에 비해 산베다 학교의 경우 비교적 단순하게 커리큘럼이 짜여 있었으며, 또 교육과정상 배워야 할 내용도 우리에게 비해 적어보였고, 무엇보다도 좀 더 쉬운 것으로 보였다.

9) 산베다 학교는 2009년 8월 20일에서 24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회 국제수학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싱가포르, 중국, 타이완,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홍콩, 필리핀 등에서 557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산베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커리큘럼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⁰⁾

<표3> 산베다 알라방 고교 학년별 커리큘럼

학년	개설 교과목
1 학 년	그리스도 가치교육1(구약), 필리핀어1, 사회과1(필리핀 역사와 정부), 영어1(필리핀 문학/의사소통능력을 위한 기술), 과학과 기술1(일반과학), 수학1(기초대수학), 실과1(영양과 조리기술/기초타이핑과 사무실 응용/MS Word/Powerpoint), PEHM1(P.E., 보건, 음악), 미디어 교수프로그램1, 학생활동1, 홈룸 안내프로그램1
2 학 년	그리스도가치교육2(예수그리스도와 신약), 필리핀어2, 사회과2(아시아 역사), 영어2(AFRO-아시아 문학/의사소통능력기술), 과학과 기술2(생물), 수학2(중간대수학), 실과2(웹페이지 개발/그래픽 디자인), PEHM2(P.E., 보건, 음악), 미디어 교수법 프로그램2, 학생활동2, 홈룸안내프로그램2
3 학 년	그리스도 가치교육3(그리스도 도덕), 필리핀어3, 사회과3(세계 역사), 영어3(영국/미국문학/의사소통능력기술/경력3을 위한 영어/인간학 심포지엄), 과학과 기술3(의료과학: 일반화학/생화학입문), 수학3(기하학), 실과3(의료학: 프로그램 논리형식/터빈C/기초 동식물학), PEHM3(P.E., 보건, 음악), 학생활동3, 홈룸안내프로그램3
4 학 년	그리스도 가치교육4(교회와 성사), 필리핀어4, 사회과4(경제), 영어4(세계 문학/의사소통능력 기법/경력4영어/경력4를 위한 영어/인간학 심포지엄), 과학과 기술4(의료과학: 일반물리/공학및건축: 일반물리/기술물리학입문)(경영및기업가정신: 일반물리학)(예술및문학: 일반물리학), 전기4(의학: 바이오기술)(공학및건축:미적분학의 성격을 띤 분석기하학), 수학4(대학대수학) 실과4(선택), PEHM4(P.E., 보건,음악, CAT-1), 학생활동4, 홈룸안내프로그램4

출처: San Beda College Alabang(2008: 19-20)

10) 필리핀에서도 교육과정은 목적에의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2002-2003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대인적 기법, 타문화에의 감정이입, 언어적 효율성,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시 말해 신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의 사회문화적 및 경제사회적 문해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자세한 내용은 Mendoza, J. & Nakayama, S.(2003) 참조할 것.

각 교과는 학년별의 단계적 심화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학년별로 11개 내외의 과목 중 실제로는 5-6개 교과목을 이수토록 하며 학년 진급에 따른 심층적인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고교 교육과정은 인문사회군(국어과: 6과목, 도덕과: 3과목, 사회과: 10과목), 과학기술과학군(수학과: 6과목, 과학과: 8과목, 기술가정과: 6과목), 체육과학군(체육과: 3과목, 음악: 3과목, 미술: 3과목), 외국어군(외국어: 6과목, 제2외국어: 14과목), 교양군(한문: 2과목, 교양: 9과목) 등으로 나뉘어 있다.¹¹⁾ 산베다 학교의 커리큘럼은 비교적 단순명료하며 학년별 연계성을 고려해 편성하고 있었으며 또 단위학교의 고유성(가톨릭학교)을 살릴 수 있었으며, 그리고 커리큘럼의 구성도 실생활 관련 교과들이 다수 편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심화해가는 커리큘럼의 형태를 띤 것으로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학생발달의 유기적 관련성을 바탕으로 학교의 창학정신과 필리핀 사회의 특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염두에 두고 교양과 전문지식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교과학습과 학생활동 영역의 형평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그곳 교육과정은 이론과 원리 중심이라기보다 실생활 및 활동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이런 교육과정의 원리를 학교교육의 실제 장면으로 드러내 고자 시도하였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의 실제적 운영형태를 볼 때 우리처럼 교육과정 운영상의 편법을 잘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과정이 세련되게 구성되었느냐와 관계없이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은 학교교육 전체의 정상화와 연결되어 학교교육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을

11) 현행 7차교육과정에서는 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실기·체육·음악·미술·외국어 등 10개 교과군을 학년별 10-12개 교과목 내외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부담을 고려해 국어·사회·수학·과학기술·체육·예술·외국어 등 7개 영역으로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볼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 선택형, 자율형의 형태를 띤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 이래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수월성과 효율성에 유리한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편성이 이루어지면서 여타 교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입시정책에 따라 학교교육이 영향을 받으며, 이런 입시정책의 변화는 현장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¹²⁾ 산베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은 학년별에 따른 심화형으로 되어 있어 교과별 심화학습을 가능케 하고 있었으며, 또 학교의 설립 정신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살리려 하였다.

이 학교에 유학중인 권○○(고4, 2009.8.24 면담)은 그곳 산베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와 비교해 산베다 학교는 주어진 교육과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실제 교실수업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곳 학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수업에서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선생님들이 개발한 자료를 토대로 수업에 많이 활용하신다. 그리고 수업의 대부분도 교사중심의 강의식 방식보다는 토론과 문답식 형태로 진행되며, 과학과 같은 과목은 학생참여형으로 이루어진다. 또 시험에서도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간, 기말고사 형태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고된 퀴즈와 깜짝 퀴즈 등의 수시시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이곳 학교교육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크게 얽매이지 않으며 교사의 재량권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곳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교생들(초등학생들과 대학생들까지 함께 참여)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는 다양한 축제를

12) 학교현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교육과정의 측면보다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교육과정의 편법이 이루어진다. 특히 고3의 경우 예체능 교과는 수능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자습을 시키거나 아예 중요교과공부를 하도록 하는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자주 열고 있으며, 또 각종 다양한 클럽활동에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2. 교사

산베다 학교교사들은 본연의 과업인 교과연구와 학생지도에 충실함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교과영역 활성화를 위해 교과대표교사제(Coordinator)를 도입하였으며,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위해 훈육교사제(Prefect)를 활용하였다. 교사를 교원(Faculty)의 범주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며, 정규교사이외에도 보조교원, 그 밖의 홈룸, 클럽활동 등등에서 전문교사를 활용하여 교사전문성을 살리고 있었다.

산베다 학교에서는 신학, 필리핀어, 수학, 과학, 실과, 사회과 등의 영역에서 교과대표교사를 Coordinator라 부르며 그들은 학력신장과 교수학습방법 영역에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교과교사들을 총괄하며 학력향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은 교과별 교사들을 통솔하면서 교장, 교감과의 밀접한 연계 하에서 학력향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교사들이다. 아울러 그들은 교과성적 관련 일과 관련 교과별 경시대회 등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1) 교과대표교사(Subject Area Coordinators): 그는 자신의 담당교과에서 교사들의 훈련과 감독을 책임지며, 담당교과 영역의 강의계획서(syllabi)와 공동교육과정의 개발과 보완에 책임을 진다. 그는 교수학습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교수학습자료의 개발과 향상에도 책임을 진다. 그는 담당교과영역에서 교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산베다 알라방 학교에서는 신학, 영어, 필리핀어,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 기술가정과, 예체능과에서 11명의 교과대표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¹³⁾

2) 사회활동 대표교사(Social Action Coordinator): 그는 모든

SAP(Social Action Program) 프로젝트 개발과 활동수행에 책임을 진다. 그는 학급담임교사(Class Advisers), 클럽담당교사(Club Moderators)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작성·제공한다.

산베다 학교교사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훈육교사제(Prefect)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전문적으로 지도한다.¹⁴⁾

1) 활동담당 훈육교사(Prefect of Activities): 그는 학교활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반적 커리큘럼과 그 밖의 예외적 커리큘럼 활동을 기획·개발·평가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책임을 진다.

2) 학생담당 훈육교사(Prefect of Students): 그는 학생관련 각종 오리엔테이션, 행동지침, 훈육 등을 책임진다. 교장직속위원회와 보조수준 Prefect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는 규정된 정책이나 절차에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징계할만한 사례를 조사하며 그렇게 행동하도록 노력한다.

3) 학생담당 보조훈육교사(Assistant Level Prefect of Students): 그는 그의 직책과 책임을 수행하면서 학생담당 훈육교사를 돕고, 그가 부재할 때 그의 기능을 교대로 수행한다. 또 학년별 훈육교사를 임명하여 각 학년에 적합한 학생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며,

13) 이들은 우리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각 교과목에서의 교과부장 교사에 해당된다. 실제 우리의 경우 중등학교는 각 학년별로 교사들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비해, 그들의 경우 교과별 Coordinator들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며 학생들의 학습과 성적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14) 이 점은 우리 학교교육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입시와 첨단매체기술에 둘러싸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일탈현상을 염두에 둘 때 학교교육에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Prefect 교사제를 통해 학생생활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 산베다 학교에서는 Prefect 교사들이 위계상 및 직책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도록 하였고 학생들도 Prefect교사들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산베다 학교는 가톨릭의 교풍을 유지하려 하였다.

학생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San Beda College Alabang Campus 2008: 52).

Prefect 교사는 우리의 경우 학생부장과 학생부 교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곳에서도 학생문제는 범상치 않은 문제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곳 학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김○○, 고3, 2010.8.24 면담)의 눈에 비친 Prefect 교사상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이 학교에서 Prefect 교사는 교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또 그 권한이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 나도 Prefect 교사에게 불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의 두려움은 대단했다. 다만 필리핀 학생에게는 좀 유리하게 나에게는 좀 불리하게 대해 주는 것에 불만이었지만. 이곳 학교가 가톨릭계여서 흔히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행, 왕따 등의 각종 학생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교복착용과 수업중의 학업태도 등에 대해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다룬다.”

일반교과 담당교사들(Subject Area Teachers)은 학생들의 학습과정, 성장, 발달에 책임을 진다. 그들은 우리의 경우 일반교과교사들에 해당되며, 자신이 담당한 개별교과목을 담당하고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한다. 그들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학습과 학생생활지도, 행정업무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산베다 학교에서는 정식교사 이외에도 여러 명의 보조교사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공부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었다.¹⁵⁾ 보조교사들은 수업현장에서 교사들과 협력하여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거나 수업자료 만들기, 교실 간 이동 및 점심식사 지도, 이동

15) 산베다 리살 캠퍼스의 경우, Faculty 구성원을 보면, 행정요원(23), 유치원과 초등2년까지의 Primary Grade School(19), 초등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Middle Grade School(30), High School(37)의 교사들이 있으며, 여기에 Guidance Counselors(9), Librarians(2), Library Staff(10) 등 총 130명으로 되어 있었다.

한 교실에서 수업결과와 행동에 대한 관찰과 보고, 학생들의 부족한 공부습기, 숙제검사 등을 돕는다. 특히 물리, 화학, 생물 등 실험실습 교과목의 수업 때 그들은 학생들의 실험과정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며 학생들을 도와주었다. 과학수업은 실험실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조교사는 실험준비부터 실제수업, 수업종결에 까지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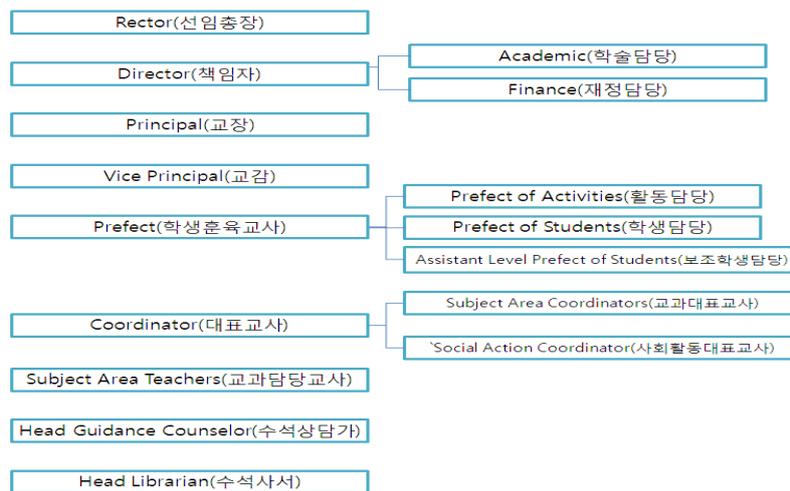
그밖에 홈룸교사들(Homeroom Advisers)은 학급 내에서 학생들을 책임진다. 교장은 훈육교사와 긴밀한 협력을 고려해 그를 임명한다. 그는 학생 훈육문제에 대해 학생담당 보조훈육교사에게 책임을 지며, 행정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담당관(비서)에게 책임을 진다. 교장은 활동담당 훈육교사와 교과대표교사와의 협력을 고려하여 클럽담당교사(Club Moderators)를 임명한다. 그는 클럽 혹은 조직의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실제적 실행에 책임을 진다(San Beda College Rizal Campus 2007: 41-42).

산베다 학교는 상담교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수석카운셀러 교사를 중심으로 4명의 상담교사들(이 학교 상담실은 수석상담원 1명, 일반상담원 4명, 행정가 1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이 상주하며 학생상담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상담여부의 기획, 수행, 평가 일을 수행한다. 면담했던 수석 카운셀러 (Mrs. Cristina V. Frani, 2009.8.23)는 자신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각 상담원들은 보통 하루 7~8회 정도 찾아오는 학생들의 요구를 듣고 상담을 진행한다. 우리의 학생들은 부모이혼, 가정파탄, 임신, 폭력, 진로와 진학, 학교생활에의 적응, 성적부진 등 세계 여러 나라 청소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상담원들은 학생들의 개별적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려 노력한다. 요즘은 각종 심리검사와 진로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진학에 노력하며, 특히 성공적 학교적응에 관심을 집

중하고 있다. 나는 상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 교장, 교감 선생님과 상의하여 상담활동이 보다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산베다 학교교사들은 우리와 비교할 때 상당히 복잡한 체계에 속하고 있었으며, 보다 전문화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교사들은 맡은 바 교과를 가르쳐야 하고 각종 행정적인 일을 담당해야 하며, 성적, 진로, 생활 등의 영역에서 상담을 해야 한다. 산베다의 경우 교과지도, 생활지도, 상담전문교사, 행정업무 등의 각각 영역으로 전문화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이런 전문화된 교사조직으로 볼 때 학생 수 비례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교원총원률을 보인다고 하겠다. 우리의 경우 교사역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비해 그곳의 교사역할은 상당히 세부적인 영역으로 나뉘 전문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그곳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4> 산베다 학교의 교사조직체계



3. 교수학습 방법

산베다 학교에서의 수업은 필리핀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에서 영어로 진행되었다. 이곳 학교의 기본방침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 사회, 과학, 수학 등 대부분의 과목에서 영어수업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교무회의 등의 공식회의에서도 영어를 사용하였다. 교과를 망라하여 모든 교사들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도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학교구성원들도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있었다. 영어몰입식 수업의 일상화를 볼 수 있었다.¹⁶⁾

그곳의 수업모습은 우리와 상당히 달랐다. 입시와 시험을 겨냥해 정답맞추기식 수업에 비해 그들의 수업방식에서는 유연성 내지 융통성을 찾을 수 있었다. 교사와 학생들 모두 밝은 분위기에서 상호 토론을 통한 탐구형 수업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한 학급은 20여명으로 구성되었고, 학생들이 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었다. 곧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의 진급에 따라 탈락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여 적은 수로 공부하고 있었다. 이런 통과/탈락은 학생들을 긴장하게 하여 학생들의 수업집중력을 높여주었고, 흔히 우리 의 학교에서 나타나는 비중요

16) 이곳 학교(산베다 알라방)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도 상당수가 공부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에 60여명, 고등학교에 100여명 정도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처음 온 학생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지만 6개월 이상된 학생들은 영어수업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필리핀에 온 이유가 영어를 배우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곳의 우리 유학생들에 의하면 이 학교에 오게 된 중요한 이유는 특별히 학교가 좋은 곳이라기보다 가톨릭계에서 비교적 규율이 잘 잡혀있고, 또 학비가 비교적 저렴하게 든다고 했다. 여러 점을 참작할 때 이 두 학교는 필리핀에서의 특수한 위치에 있는 학교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중상류층의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학교로 보였고, 또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경영하는 관계로 특권층을 대상으로 한 영재학교와 같은 특수학교로 볼 수 없다. 그것은 베네딕도 수도원의 정신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과목에 대해서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¹⁷⁾

그들의 경우 과제수행형 학습이 일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사들은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보다 자신이 개발한 각종 수업자료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학생들에게 학습지의 빈 공간(워크시트)을 매워가도록 하는 수업이 일상적으로 진행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교사는 수업의 처음에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였고, 그것을 어떻게 실생활의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였다. 교사의 설명이 끝난 뒤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은 몇 가지의 궁금 사항을 질문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교사의 응답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주변의 아이들과 협력하거나 각자 자료에 제시된 빈 칸을 메워갔다. 그들에게 교과서는 수업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었지 우리처럼 수업의 핵심교재로 활용하고 않았고, 주로 자료에 입각해 수업이 진행됨을 볼 수 있었다.¹⁸⁾

참관하였던 고등학교 4학년(우리의 고1) 물리수업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후 참관하였던 물리 이외의 다른 교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1) 목적(objectives) → 2) 가치진술(value statements) → 3) 주제문제(subject matter) → 4) 참고문헌과 자료(reference/materials) → 5) 학습활동(learning activities) → 6) 결론(conclusion) → 7) 과제부여(assignment)

17) 실제로 우리 입시학교의 경우 수능시험에 관계되지 않는 교과들은 정상적 교과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라 한다. 학교당국에서부터 학부모,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수능 시험에 연계되지 않는 공부를 공부라 여기지 않으며, 다만 내신점수 관리용으로 공부할 뿐이라고 본다.

18) 필리핀의 경우 교과서는 수업의 한 가지 도구로 보았다. 교과서는 필요하지만 사용자는 유일하거나 과도하게 교과서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토론과 학습을 의미있게 하도록 보증할 수 없다. 특히 사회과와 같은 통합학문적 성격을 띤 경우 수업은 교과서와 그 밖의 다양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생들의 의미있는 변화로 연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심지어 교과서에의 과잉의존은 학생들(교사포함)에게 잘못된 사고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교사의 수업자료개발과 활용은 중요한 교육의 본질적 영역으로 바라보았다.

특정 주제와 토의를 중심으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며 어떻게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할 것인가 및 어떻게 결론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탐구형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사는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의 기구나 사례를 통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교사의 설명 중 이거나 설명이 끝난 뒤 학생들은 자신의 견해를 비교적 자유롭게 개진하였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편안하게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으로 보였으며,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다양하게 유도하기 위해 이런저런 유머와 몸짓을 동원해 학생반응을 이끌어내려 하였다. 수업분위기는 대체로 자유로웠으며, 또 교실환경에서도 교실마다의 독특성을 느낄 수 있었다.¹⁹⁾

그곳 학교수업의 또 다른 특징은 Group1, Group2, Group3, Group4, Group5 등으로 학생들을 나누어 주제별로 정해진 그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 그룹별 토론을 하게 한 뒤 그룹별로 작업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그들의 수업에서는 팀별 협동학습이 강조되었다. 팀별 토론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학생들 사이의 협동적 관계를 키우며, 동시에 자유토론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강조하였다. 또 학생들도 팀별수업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며 협동적 학습장면에 익숙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의 과학교과는 철저히 실험실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사와 보조교사의 지도아래 학생들도 흰색 실험용 복장으로 5~6개로 배치된 테이블을 중심으로 4~5명의 학생들이 각종 기구와 약품을 이용한 실험에 직접 참가하면서 실험에

19) 주지하듯이 우리의 경우 입시위주로 효율성을 염두에 수업이어서 대체로 경직된 수업분위기가 나타나며, 교실환경에서도 거의 똑같은 크기와 형태로 교실마다의 고유성을 찾기 힘들다. 최근 몇몇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실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런 경향이 일반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현상여건이라 할 것이다.

따른 경과와 결과를 노트에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곳저곳에서 실험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교사들도 그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였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과학교과 실험수업의 경우 몇 명의 보조교사들이 각 개별테이블별로 배치되어 학생들의 실험에 직접적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교과교사는 설명을 하고 수업의 전체를 주관하였으며, 실험테이블별로 배치된 보조교사들은 담당 교과교사의 지시를 받으며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습을 보이며 학생들이 실제로 시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사회과 수업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수업은 <표5>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었다.

<표5> 고1 사회과(필리핀 역사와 정부) 수업모형도

단계	활동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에서 어려운 점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라. 현재 인구의 규모에 대한 함의를 토론하라. 주어진 사진자료에 대해 분석하라.
가치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세대에게 있어서 자연적 자원의 적절한 사용에 관해서
주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의 인간자원(인구, 건강, 교육 등)
참고문헌 과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문명: 역사와 정부 인구와 생명존재에 관한 사진
학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적인 것(현재의 현안을 중심으로) 학생활동: 동기부여(사진과 노래분석)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은 인구감소에 따라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데 필리핀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특히 가톨릭의 입장에서 세계적인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과제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입장과 교회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구정책에 대한 비교

그곳 교사들은 한 시간 수업을 위해 <표5>와 같이 수업모형을 작

성하였다. 이 모형은 산베다 학교의 대부분 교사들이 사용하는 형태였다. 교사는 먼저 이번시간의 학습목표인 인구에 관련된 파워포인트와 사진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뒤 인구, 건강, 교육 등의 몇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조별 토론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런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발표를 토대로 현재 필리핀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에 따른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여러 차원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인 필리핀 사회의 특수입장에서 출산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선진국에서 시행했던 인구정책의 답습에도 문제가 많음을 주지시켰다. 교사는 이 내용에 대해 차시학습주제로 설정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으며, 국가와 가톨릭의 입장에서 인구정책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관련자료를 찾아 읽고 토의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였다.

학생들은 수업관련 활동에서 배우고 느꼈던 내용들을 노트에 잘 기록해두고 있었다. 그들은 노트를 반드시 가지고 다니며 수업 중에 배웠던 것이나 발견한 사건들을 꼼꼼히 기록하였으며, 그리고 교사가 내준 자료들을 노트에 끼워 보관하였다. 우리의 교과서와 참고서 중심의 수업과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교과서에 즐겁고 별표하기와 같은 표시들을 잘 볼 수 없었다. 대체로 그들의 수업은 탐구식 수업에 따르는 학습의 과정을 중요시하였다. 전 과목을 망라하여 노트필기의 형태는 “문제제기→개념규정→가설(○, ×)→가설검증→결론도출”식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노트 곳곳에 교사가 제공한 자료들이 붙어 있었고, 그에 토대하여 학생이 여러 자료를 활용해 나름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학습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²⁰⁾

20) 산베다 학교의 교수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강의-퀴즈-대답의 주기적 순환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교사들과의 면담에 의하면 “이 방법은 학생들의 잠재적 추론과 표

산베다 학교는 모든 교과수업에서 통과/탈락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그곳 교실수업의 한 단면을 우리 유학생(이○○, 고3, 2009.8.25 면담)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들어보도록 한다. “저의 생각으로 우리교육과 비교해 필리핀 교육의 중요한 특징은 pass/fail의 엄격한 적용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pass/fail 제도가 없어서인지 공부하지 않아도 다음 학년으로 자동 올라갈 수 있다. 보통 국영수를 중심으로 하는 중요과목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입시에 관련되지 않은 과목들에서는 대충대충 공부하여도 자동 진급이 되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교육과정으로 주어진 어떤 과목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탈락하게 되어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이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때 이 제도는 이 나라 학교교육의 중요한 장점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학교에도 도입을 권하고 싶다.”

4. 학생활동

우리의 경우 학생활동이 명목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대신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과공부로 대체된다. 필리핀의 경우 몇몇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학생활동을 보장하였고, 무엇보다 학생활동을 학교교육의 핵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각가지 형태로 학과공부에 전념하여 학생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비해, 산베다 학교에서는 오후 3시경 학과수업을 마친 뒤 학생들은 여러 학생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였다. 학교에서도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각가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학생대표들로 구성된 학생집행부(The Student Executive Board)는 학생문제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서 학생

현능력을 조화롭게 개발하는데 가장 성공적이라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며, 또 많은 연구에서 그렇게 증명되었다고 하였다.”

들과 행정기관사이에 일종의 통치기구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현안을 대변할 수 있다. 학생들은 주1회 홈룸활동과 클럽활동에 참가하며, 이런 참여를 통해 자치능력과 특기적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밖에도 학생위원회, 학년별 학생위원회, 학생대표, 동료촉진자(peer facilitators) 등의 학생활동 관련제도를 설치하여,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의식과 자치능력을 키울 수 있다.

산베다 학교의 경우 40여개 정도의 클럽활동을 두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한 곳 이상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었다. 매주 금요일 마지막은 클럽활동 시간으로 수학, 과학 경진대회 참여를 위한 것에서부터 농구, 수영, 축구 등의 스포츠 활동, 그리고 각종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망라되어 있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클럽활동 욕구충족을 위해 전문교사제를 두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정규학과공부를 마친 오후 3시 이후 학생들은 각자가 소속된 학생활동 영역에서 다양한 취미 및 교과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곳 학교의 오후시간은 여기저기서 우렁찬 함성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체육관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수영과 농구를 즐기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산베다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서 아주 엄격하였다. 학년별로 생활지도교사제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훈육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였다. 대표 학생생활 지도교사와 각 학년별 학생생활 지도교사를 임명하여 학생활동과 생활에 관련되는 일을 담당하였다. 학생들이 지켜야 할 품행(deportment)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도, 학습, 침묵, 공동체 생활, 공손한 청취, 검소함, 겸손, 친절, 기강, 일 등을 수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실제 학교생활에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였다.²¹⁾

21) 예컨대 학습측면에서 학생이 지켜야할 학습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할 때 긍정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2. 학급/집단활동에 정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산베다 학생들의 수업참여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학급당 25명 정도로 구성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적극 참여하였고 활기차게 공부하였다. 자유로운 교실분위기에서 학생들은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즐겁게 공부함을 볼 수 있었다. 시험도 퀴즈식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높이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경우 우리처럼 시험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이번에 시험을 잘 보지 못했어도 일상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에서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 의하면 수업시간 중에 배운 내용을 그때그때 평가하는 식으로 수업시간마다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쪽지시험 형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업시간에 내준 학습지만 잘 보관하면 언제든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 우리처럼 중간, 기말고사 형태의 시험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며, 따로 시험준비의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이 우리처럼 어렵게 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 이론중심이 아닌 실생활에 관련되는 것이 많아 즐기며 공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²²⁾

교사들은 자신이 담당한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학생들의 토론식 협동학습을 시킨다. 학생들은 교사가 나누어준 학습지의 빈칸을 채워야 하며, 조별로 토론하면서 그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 뒤 곧바로 교사는 학습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쪽지시험과 구두시험을 실시하였다. 우리의 중간, 기말고사와 같은 형태는 따로 없다고

개인적 주도성, 근면과 재치를 보여야 한다. 4. 수업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즉시 준비해야 한다. 5. 요구하는 것을 정시에 제출해야 한다(San Beda College Alabang 2008: 55).

22) 이곳 학교에 유학중인 한국학생들에 의하면, 해야 할 공부의 양이 우리보다 적으며, 학습에의 부담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실제 우리의 인문계 고교 2,3학년들의 수업모습을 보면 그들이 공부를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다. 고교교사들에 의하면,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주어진 교육과정과 수능급 문제에 거의 따라갈 수 없어 공부를 포기할 지경이라고 한다.

하였으며, 그래서 학생들도 시험에 따른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았다. 그곳 학교는 우리에게 일상화되어 있는 참고서와 학습지 중심의 시험공부에서 자유로웠다.

방과후 스포츠 활동은 단연 돋보였다. 농구, 수영, 축구 등의 활동에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수업을 마친 뒤 학교시설을 이용해 저녁 늦게까지 심지어 불을 켜놓고 운동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산베다 학생들은 수학경시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 및 국내대회에 참여해 두서의 성적을 거두고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홈페이지나 학교행사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다.

산베다 학생들은 아침 일찍(대체로 6:30~7:00 전후로) 등교하여 오후 3시경 수업을 마친 후 각자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농구는 그들이 아주 즐겨하는 운동이었다. 오후 내내 운동장, 수영장, 체육관 등에서 운동을 즐기고 있었으며, 여러 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우애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늦게까지 그곳 학교는 곳곳에서 우렁찬 함성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거기서 뭔가 살아있는 역동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온 학교교실에 불을 켜고 조용하게 공부에 전념하는 모습과 확연히 차이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²³⁾

유학중인 한국학생에게 필리핀 교육의 장단점에 대해 질문했다. 그 학생(Yoseb and Joon Hee, 2009.8.25)은 필리핀 교육의 장단점을

23) 방문 중 ‘내면의 사자를 깨워라(Awaken the lion within)’(2009.8.25)란 주제로 학교 축제가 열렸다. 대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들과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교 학생들이 약 1시간 30분 동안 체육관에서 축제를 개최하였다(오후 13:30~15:00). 30도를 웃도는 더운 후덥지근한 날씨였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학생축제에 참가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의 상징인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학년별 장기자랑을 벌이면서 도전정신과 강렬한 열정을 표현하였다. 매스게임에서의 일사분란한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필리핀 학교교육의 장점은 pass/fail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아이들이 설렁설렁 공부해도 학년을 올라가는데 비해 이곳은 주어진 과목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자주 치루는 시험으로 인한 시험의 일상화(우리의 중간, 기말고사 형태와는 다름)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험공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그리고 시험범위도 적고 매일 매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을 본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가 없다. 매일 쪽지시험 보고 자주 워크시트를 내준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서도 필요 없고 쪽지시험이나 워크시트를 잘 보관하면 별 어려움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이곳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수업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어 우리에게 중요한 영어학습에 아주 효율적임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그 학생이 지적한 필리핀 교육의 단점을 들어보도록 한다. “무엇보다 우리와 교육방법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곳 선생님들은 자신의 관점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하는 경향이 있어 어떤 사건이나 문제의 본질적 차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특정 사건이나 문제든 거기에는 본질적 부분이 들어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교사의 관점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 필리핀 학생들은 대체로 비논리적 생각과 태도를 갖는 것 같다. 이는 우리나라 선생님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선생님의 입장에서라기보다 그 사건이나 문제의 본질을 알려 주려 애쓰신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각 선생님마다의 고유성(주관)이 너무 강하여 각 반마다 진도가 다를 수 있고, 내용학습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더욱 이곳의 수업이 대부분 참여식으로 진행되어 소극적인 학생은 그런 수업에 따라가기가 힘들다.”

V. 마무리

지금까지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 소재하는 산베다 칼리지 알라방(리살 캠퍼스 부분 포함) 고교를 중심으로 필리핀 학교교육의 실태와 실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산베다 학교는 필리핀의 여타지역과 비교해 교육여건이 양호하였다. 빈부격차가 심한 그곳 경제사회적 환경을 염두에 둘 때 주변여건이 좋았으며, 그리고 교육의 외형적 실태와 실질적 내용도 대체로 좋은 것으로 보였다. 이런 점에서 산베다 칼리지 알라방과 리살 캠퍼스를 기준으로 필리핀 중등교육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렇지만 이상에서의 관찰을 중심으로 필리핀 중등 학교교육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교설립 정신을 반영해 개별학교의 이념과 목적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산베다 학교는 학교설립의 독자성과 고유성에 입각한 커리큘럼을 개발·적용하였다. 점점 세계화, 정보지식화 사회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에서 학교설립 정신을 반영해 독특한 교육내용을 실현하는 것은 그곳 학교교육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둘째,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해야 한다는 학교교육의 보편적 원칙에 충실함을 볼 수 있었다. 그곳 학교는 교사의 잘 가르치는 영역에 관심을 두고 교과대표교사제(Coordinators)를 통해 교사의 교수학습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고, 동시에 훈육담당교사제(Prefect)를 활용해 학생생활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교사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행정업무를 비서들이 전담하게 함으로써 그곳 교사들은 교과지도와 학생지도에 전념하였다. 이 사실은 필리핀 학교교육의 특히 돋보이는 점으로 보였다.²⁴⁾

24)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은 행정업무로 불리는 집무가

셋째, 교수학습적 차원에서 탐구형, 토론형, 실험실습형 등의 학생주도적 내지 학생참여형 수업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명문대 합격을 겨냥한 성적과 점수관리를 위한 우리의 수업형태와 많이 달랐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수업을 지루하게 여기거나 하기 싫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즐겁게 수업에 동참하였다.

넷째, 학교교육이 주어진 커리큘럼에 입각한 규정된 대로 진행되었으며, 학교의 교육과정이 비교적 예측 가능하게 전개되었다. 우리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보충수업, 방과후교실, 야간자율학습 등의 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이 예측불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들의 경우 학교교육의 모두를 정규교육과정으로 바라보고 이 틀 안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아울러 통과/탈락제도의 일상적 활용으로 주요교과와 그렇지 않은 교과목 간의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원리에 입각한 정상적 교과과정 운영을 통해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사교육에의 의존 없이 학교교육만으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 학원수강, 참고서와 문제집, 인터넷 강의, 교육방송 등 학교 밖의 교육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비해 그들의 경우 학교 내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은 각자의 사회가 갖는 교육사회학적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일 수 있다. 그렇지만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가깝게 다가서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필리핀의 학교교육도 나름대로의 커다란 문제점을 내재하

많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맡은바 교과를 잘 가르치고 학생생활을 지도하는 것을 본연의 업무로 보고 있는데 비해 행정적 차원의 잡무하는 것에 많은 불평을 터뜨리고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무엇보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수월성 확보에 학교교육이 얼마나,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였다. 세계 여타의 나라들과 비교해 2년 단축해 운영하는 중등교육기간으로 말미암아 세계적 경향에 잘 맞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런 단축에 따른 교육내용을 얼마나 잘 보충할 것이냐는 필리핀 중등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보였다. 다음으로 필리핀 사회의 극명한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적 간극과 격차를 어떻게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교육으로 나아갈 것이냐는 필리핀 학교교육이 당면한 중차대한 과제라 생각되었다.

주제어: 필리핀 학교교육, 산베다 학교, 즐거운 학교, 교육적 함의

〈참고문헌〉

- 김양근 · 이국행. 2005. “한국과 필리핀의 초등학교 과학교과서 중 환경교과 내용의 비교분석”. *Jour. Science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30. 65-72.
- 김태영. 1977. “필리핀의 새 사회과교육 이론의 수용과 그 적용 및 전개 현황에 관한 연구”. 『사회와 교육』 . 1-27.
- 유석춘. 1998. “필리핀의 사회제도: 가족, 종교, 교육”. 『필리핀』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Julianda, Lazara. 1971. "The Rationale of the New Social Studies Program". *Junior Citizen Teacher's Edition* 1 (13), oct.4.
- Mandoza, R, J. & Nakayama, Shuichi. 2003. "Makabayan Curriculum for Secondary Schools in the Philippines: The Development of Citizenship". *Educational Research for Policy and Practice* 2:

13-26.

Mihans, R. 2009. "Can Teachers Lead Teachers?". www.eddigest.com(검색일: 2009. 9. 10)

Nem Singh, R. P. & Padilla, C. P. 2009. *Innovative Teaching and Evaluation*. National Book Store.

Ulpiano 'ULAN' P. Sarmiento III, Esq. 2009. *Education Law and the Private Schools*. San Beda College.

San Beda College Alabang. 2008. *Student Handbook*.

San Beda College Rizal. 2007. *Student Manual*.

Sec. Emmanul Y. Angeles. 2009. *A New Philippine Education Highway*.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http://www.sanbeda-alabang.edu.ph/gs/administrators.html>(검색일: 2009.8.11)

<http://www.sanbeda-alabang.edu.ph/hs/administrators.html>(검색일: 2009.8.11)

(2010. 4. 28 투고; 2010. 5. 17 심사; 2010. 6. 23 게재확정)

<Abstract>

A Study on the Situation and Trait of the Philippines School Education

Chung Yong-Kyo
(Yeungnam University)

Nowaday our school education have been undergone decisive influences by the entrance and examination-oriented education system. To enter universities which belong to top classes in Korean society could be look upon the important success of school education, and it could be equaled to the quality of competent teacher(teacher's professionalism). However, the creativity and knowledge composition ability in the school education will be considered seriously in the coming of 21st century knowledge, information-oriented and globalization society. In this situation, we try to trace about the system and style of foreign school education which is unfamiliar to us, spontaneously we should explore the educational implication which affects to our school education.

In this paper, we have reviewed about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Philippines school education(San Beda College Alabang and Rizal Campus). Of course, we tried to observe the practical education activities including a curriculum, teacher, teaching and studying method and student activity. Through this trial, we tried to suggest the effective environment and methodology for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our school education. Philippines school education 1) could be achieved educational ideas and goals based on the spirit of school establishment, 2) could be gained teacher's professionalism through the system of Coordinator and Prefect, 3) could be conducted learner-centered lessons by the learning method of exploration, discussion, task-resolving, 4) was able to created a pleasant school educ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Key Words: Philippines school education, San Beda school, pleasant school, educational implication